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호 【루계 제25161호】 주체105(2016)년 1월 18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자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을 백두산대국의 청년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의 선봉에서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가 17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청년동맹일군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행사대표들, 청년학생들이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의 영예를 떨쳐나가는 청년전위들의 기상이 차넘치는 광장은 백두산청년강국의 존엄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청년들이여,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결사보위하는 성새, 방패가 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의 구호판들과 《청년강국》, 《결사옹위》라는 글발들이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를 선두로 백두의 칼바람에 몫을 탈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충정의 이어달리기 평양시대렬이 대회장에 입장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을 맞으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에서 출발한 충정의 이어달리기대렬이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대회는 시작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에 즈음하여 청년동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송시가 랑송되였다.

송시는 백두의 붉은 기발아래 우리 청년들을 묶어세워 새 조선의 억센 기둥으로 내세워주시고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홰불봉을 안겨주시며 주체혁명의 혈통, 신념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청년강국의 주인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결의문을 전용남위원장이 선창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오직 우리 당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순결한 마음으로 당을 믿고 따르며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야 합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영상을 삼가 우러르며 백두의 대업을 굳건히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충정다할 500만 청년전위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세대가 열백번 바뀌고 세월이 천만년 흘러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가 되겠다.

청년동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제일생명인 수령결사옹위로 온몸의 피를 끓이며 백두산청년강국의 운명이시고 주체조선의 심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목숨으로 옹위하는 김정은제일결사대가 되겠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기고 혁명의 앞길에 시련의 광풍이 몰아쳐와도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우러르며 만난을 뚫고나가는 백절불굴의 청년용사, 김정은시대의 청년빨찌산이 되겠다.

백두산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선군의 내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키며 최고사령부의 명령이 내리면 500만의 청년대군이 작렬하는 폭탄이 되여 원쑤들의 아성을 죽탕쳐버림으로써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겠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넋을 바치고 뼈를 깎으며 죽음도 맞받아나가는 의지를 안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이 되여 강성국가건설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겠다.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을 끊임없이 고조시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맡겨주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기어이 끝냄으로써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청년들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겠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안아온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당에 대한 충정과 비상한 애국적열정을 안고 온 나라에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원쑤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단호히 짓뭉개버리는 최첨단돌파전의 제1번수, 제일기수가 되겠다.

선군청년문화의 창조자들답게 청년들이 있는 곳 어디서나 청춘들의 랑만과 기백, 청년멋이 차넘치도록 하며 도덕기강확립을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고 고상한 미풍을 더 활짝 꽃피워나가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제일선구자가 되겠다.

온갖 원쑤들의 봉쇄와 압력이 가중될수록 오직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부강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 자강력의 제일강자가 되겠다.

청년동맹안에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모든 청년조직을 쇠소리나는 강철의 정예대오로 꾸려나감으로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청년조직으로 튼튼히 다져나가겠다.

청년동맹일군들은 청년대오를 이끄는 기관차, 청년혁명학교의 유능한 교원이 되여 청년들속에서 5대교양을 더욱 참신하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모든 청년들을 우리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청년강국의 참된 주인공,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억세게 키워나가겠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결의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대회는 끝났다.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진행된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나갈 조선청년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첫 보름동안에 운영건물내부공사실적 최고기록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서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의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 새로운 비약과 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약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수소탄시험 성공소식에 무한히 고무되여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첫 전투의 보름동안에 최근에 보기 드문 공사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자연박물관과 선물동물2관, 본관과 보조건물, 체육문화회관을 비롯한 규모가 큰 건물들의 내부미장실적은 2만 3천여㎡에 달하고 각종 관류설치공사실적이 부쩍 높아져 건물들의 내부가 몰라보게 일신되였다.

지난 1단계공사에 련이어 건축공사들이 마감단계에 들어선 수족관과 철갑상어못건설장에서도 눈에 띄는 실적이 기록되였다.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따뜻한 손길은 훌륭히 개건되는 중앙동물원의 모든 동물사들과 운영건물들, 휴식터와 안내표식판, 관람차와 태양빛전지에 의한 야간조명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마다에 빠짐없이 깃들어있다.

중앙동물원을 명실공히 인민들이 향유할 훌륭한 창조물로 꾸리도록 하려는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중앙지휘부와 모든 시공단위 일군들은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맡은 공사성과를 확대하도록 그들의 열의를 총폭발시켜온 현장이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

시공단위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 첫 전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주타격대상들에서 단숨에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간직한 조선인민군 백광훈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어렵고 방대한 공사추진과정에 위훈창조의 기수로 자랑떨치였다.

부대장병들은 첫 전투가 시작되여 열흘동안에 5천여㎡에 달하는 보조건물의 내부미장작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장적으로 제일 어렵다던 각종 판매몰공사를 스스로 맡아 해제끼는 비상한 창조정신을 발휘하였다. 이들은 중기계운전사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불가능에 도전하는 치렬한 격전을 벌려 한달이상 걸려야 할 천수백m구간의 판매몰공사를 불과 열흘만에 손색없이 결속하였다.

첫 전투기간 조선인민군 유성철소속부대 장병들이 맡은 선물동물2관과 체육문화회관건설장에서도 새 기적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부대아래 여러 단위 전투원들은 선물동물2관공사를 추진하면서 체육문화회관의 천수백㎡에 달하는 지붕트라스조립을 단 3일만에 해제끼고 풍관제작과 조립, 이중천정공사와 함께 보통때의 3배에 달하는 6천여㎡의 내부미장실적을 기록하는 창조적위훈을 아로새기였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대외건설지도국 책임일군들과 현장지휘부에서는 자연박물관의 내부미장공사를 마감장식시공에 확고히 앞세워 진행할 주동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위별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다.

릉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와 류경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자연박물관의 지붕과 층별, 칸별로 이중삼중의 보온대책을 세우고 간벽쌓기와 이중천정공사, 장식미장성과를 확대하였다. 박물관의 지하층공사에 참가한 모란봉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와 송화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금성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들에서도 일별, 공정별전투계획을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부흥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많은 량의 풍판을 제작하는 동시에 철갑상어못에 370여㎡의 혼석퍼기와 기계실의 벽체와 바닥타일붙이기, 방수미장성과를 부쩍 확대하였다.

본관과 수족관건설을 맡은 양각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와 승리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보온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지난 12일까지 매일 굽도리장식미장과 200여m의 급배수관들이기, 150㎡에 달하는 기둥장식미장, 20여m의 풍관설치를 다그쳐 종전보다 1.2배의 공사실적을 기록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비상한 창조정신에 떠받들려 새로 일떠서는 운영건물들의 내부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완연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기계제염공정건설 마감단계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기계제염공정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건축공사와 함께 설비, 장치물제작 및 설치를 동시에 내밀어 총공사량의 90%이상을 해제끼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기계제염공정을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와 화학공업성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기계제염공정건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참신하게 벌려 건설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였다.

련합기업소참모부와 건설지휘부일군들은 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능숙한 전투조직과 지휘로 건설공사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설계와 시공, 설비와 자재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주어 공정건설을 중단없이 내밀도록 하고있다.

함흥화학설계연구소 일군들과 설계원들이 전투현장에 나와 기술설계와 시공을 짜고들었으며 천내리세멘트공장, 함흥씨리카트벽돌공장, 함흥세멘트공장을 비롯한 련관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건설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능력이 큰 기계제염공정이 건설되면 련합기업소의 가성소다생산에 필요한 소금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하게 된다.

연건평이 수천㎡에 달하는 기계제염공정은 취수뽐프장, 거르기, 전기투석, 증발결정공정과 출하장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소금생산의 기본공정들인 거르기, 전기투석, 증발결정공정건축물들이 일떠서 자기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보이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건축공사와 함께 설비, 장치물제작과 설치작업도 동시에 내밀었다.

화학기계분공장, 보수분사업소, 가소제, 농약, 제관, 염료, 동력1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로 근 20종에 30여대의 증발기, 가열기를 비롯한 설비, 장치물들에 대한 제작을 마무리하고 설치작업을 짧은 기간에 끝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의 연구사들과 함께 총시운전을 진행하면서 소금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기계제염공정건설이 완공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룡매도간석지 4구역건설 시작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룡매도간석지 4구역건설이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간석지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 열의밑에 방조제건설에서 본때를 보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룡매도간석지 4구역건설은 수백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십리에 달하는 방조제공사와 30여만㎥의 장석공사, 9천여㎥의 콩크리트치기를 비롯하여 방대한 건설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이다. 룡매도간석지 4구역건설이 끝나면 두개의 큰 농장 농경지와 맞먹는 새땅이 생겨나 많은 알곡이 생산되게 된다.

당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종합기업소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룡매도간석지 4구역건설을 기한전에 끝낼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룡매도간석지 6구역건설을 완공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산악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일군들은 공사대상과 공사량을 정확히 확정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건설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붉은기들이 펄펄 휘날리는 전투장들마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대중을 신년사과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있게 울려퍼지고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창조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건설자들은 맵짠 바다바람과 강추위속에서도 그날계획을 그날로 넘쳐 수행하기 위하여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결사관철의 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간석지건설장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새해전투가 시작되여 10일동안에만도 많은 량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백m의 방조제를 건설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간석지건설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날에날마다 자랑찬 위훈을 수놓아가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드세찬 공격전으로 련일 혁신

혜산청년광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혜산청년광산 로동계급이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여 말겨진 광물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광산로동계급은 첫 수소탄시험에 완전성공한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때부터 광물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혜산청년광산을 추켜세워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광산의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광산에서는 광물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광산당조직에서는 광물증산투쟁에 떨쳐나선 광부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광산의 당, 행정일군들이 갱막장들에 들어가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과 함께 광부들의 앞장에서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광산참모부에서는 정연한 생산지휘체계를 세운데 맞게 갱들에 대한 기술지도에 힘을 넣어 채굴과 채준, 운반과 선광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산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리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광산의 모든 갱들에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채굴장을 새로 전개한 혁신갱, 승리갱의 광부들이 권양기와 압축기정비를 실속있게 하고 굴진과 박토처리를 앞세우면서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북수갱의 광부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침수된 갱을 하루빨리 복구함으로써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릴 열의에 넘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운반갱에서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량의 버럭을 처리함으로써 굴진속도를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마산운반갱과 8월26일갱의 광부들도 년초부터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최철호굴진소대, 김광춘채준소대들이 월계획을 남먼저 수행할 열의에 넘쳐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들이대며 굴진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선광장로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선광처리능력과 정광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존엄높은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들,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김 정 은

위대한 70년은 청년중시, 청년사랑을 노래한다

우리 청년들은 크나큰 환희에 넘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청년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였다.

백두산기슭의 청년돌격대원들과 최전연의 초병들, 미곡벌의 청년작업반원들과 저 멀리 북변 경원군의 방목공처녀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청춘들의 심장은 하나의 긍지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내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오늘의 영광넘친 령마루에서 일흔해전 력사의 기슭을 바라볼수록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지는것이 있다.

외세의 대포밥으로부터 청년강국의 맹장으로,

비록 짧지만 이 말속에는 조선청년들의 운명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가 다 담겨져있다.

나라없던 그 세월 일제의 대포밥으로 남의 땅에 끌려가 억울하게 생을 마쳐야만 했던 식민지조선의 청년들이 어떻게 오늘은 온 세상이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는 존엄높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로 되였던가.

이것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의 70년 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력사라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자고 하시던 말씀이 력사의 진리를 새기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중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입니다.》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 청년은 어느때나 있었고 이름을 남긴 청년들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시대처럼 모든 청년들이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고귀한 영예를 지닌 존엄높은 청춘의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과연 어느때부터였던가.

이 땅에 무겁게 드리웠던 망국의 비운을 밀어내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청년사업으로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사를 쓰기 시작하신 때부터였다.

청년들을 혁명의 위력한 주체적력량, 민족의 미래까지도 걸머진 골간부대로 보시고 청년운동으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신 백두산청년장군을 모시였기에 항일의 청년투사들은 만고의 항일대전사를 수놓으며 눈보라천리, 피바다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올수 있었다.

혁명의 려명기에나 전성기에나 청년사업을 변함없는 중대사로 여기신 우리 수령님은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의 창시자이시고 청년강국건설의 위대한 개척자이시였다.

청년중시의 새 력사를 펼치시여 청년강국건설의 만년기틀을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시려 청년동맹에 태양의 존함을 모시도록 하여주시고 우리 당의 력사를 청년중시의 력사로 꿋꿋이 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

지구의 한쪽에서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 반혁명의 하수인이 되여 할아버지세대들이 쌓아올린 탑을 허물고있을 때 우리 나라에서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홰불봉을 억세게 틀어쥔 청년들이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선렬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이어왔다.

청년영웅 김진의 넋이 리수복, 안영애에 의해 이어지고 김광철, 한영철에 의해 이어졌으며 오늘은 수백만 청년전위들에 의해 그 바통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정녕 우리 당의 성스러운 력사는 곧 청년중시의 력사, 청년강국건설의 력사이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창당 첫 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고 청년중시를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다고 그리도 뜨거운 감회를 안고 말씀하신것이리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땅우에 청년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 정 은

2012 1.26》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을 받아안으며 수백만 우리 청년들이 솟구치는 격정속에 온넋으로 받아들인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청년중시정치를 빛나게 계승할것이며 청년들을 내세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올것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의 선언이였고 철석같은 의지였다.

새기여보면 위대한 선군령장의 축복의 친필과 더불어 밝아온 주체101(2012)년의 날과 달은 어떻게 흘렀으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총진군의 불길은 무엇으로 더욱 거세차게 타번졌던가.

인민군대와 청년동맹은 선군혁명의 척후대라는 믿음넘친 연설과 더불어 6월이 흘렀고 선렬들의 전승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것을 바라는 우리 당의 하늘같은 믿음과 더불어 7월이 흘렀으며 청년절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일데 대한 사랑의 조치와 더불어 8월이 흘렀다.

받아안은 그 영광도 분에 넘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수호의 머나먼 전선길에서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시였다.

흐르는 분과 초가 그대로 우리 당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을 안고 굽이친 한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어깨겯고 함께 나아갈 미더운 동지, 전우로 굳게 믿으신다.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면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영원히 군복을 입겠다는 나어린 소년단대표의 결의를 장하게 여기시며 군대에 입대하면 최고사령관의 전우가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사랑의 이야기와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서해의 최전연에서 군무생활을 하고있는 전우들을 찾아 헤쳐가신 바다길만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들에 대한 열화와 같은 정과 믿음의 세계를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미풍은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것이라고 값높이 내세워주시면서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백두산기슭의 옛 항일전구에서 주체의 혈통을 이어가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영웅적기상을 보시면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하시며 크나큰 희열에 넘치신 우리 원수님.

세상에 기쁨과 행복이 아무리 많다 한들 천군만마를 얻으신 백두산장군의 희열에 어이 비기랴.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는 백두청춘들의 영웅적기상과 위훈이여라고 하시며 한편의 시를 읊으시듯 기쁨에 넘치시여 청년들을 저 하늘이 들리도록 두팔들어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심정을 금치 못하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청년들에게 우리 당의 마음의 기둥, 억척의 지지점이라는 고귀한 칭호도 안겨주시며 우리 당은 확실히 복중의 가장 큰 복인 청년복이 있다고 뜨겁게 하신 그이의 말씀은 얼마나 청년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여주었던가.

저 하늘의 눈송이가 모두 세멘트가 되여줄수 없을가고 안타까와 울던 청년돌격대원들의 순결한 마음에 위훈의 나래를 달아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하건만 그이께서는 영웅적위훈을 세운 우리 청년들을 그리도 대견해하시며 청년들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끝까지 혁명을 하여야 하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용솟음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이 나라 청춘들의 심장에서 용암마냥 끓어번지는것이 무엇인지, 애국헌신의 립장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이여, 굳이 묻지 마시라.

진정 청년강국, 선군청년문화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태여나고 우리 당을 따르는 선군시대 청춘들의 불굴의 기개마냥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청춘대기념비로 온 세상이 부러웁게 높이 일떠설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그렇다. 절세위인들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은 청년들모두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위투사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억세게 키운 자양분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존엄높은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원동력이다.

우리 당이 청년중시를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기에 청년강국의 력사는 만대에 영원하고 조선청년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성스러운 력사속에 빛발치는 명칭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우리의 청년동맹처럼 혁명을 개척한 위대한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존엄높은 청년조직, 위대한 당을 따라 고귀한 넋과 전통을 순결하게,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계승자들의 대오는 이 세상에 없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오는 그 성스러운 행로우에 뜻깊은 명칭들이 빛발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귀중한 유산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사회력사발전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청년운동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종래의 견해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들을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력량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로 주체16(1927)년 8월 28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혁명적청년전위조직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과 청년들의 운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민족의 대경륜이였다.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시원은 이렇게 열렸다.

해방직후 그처럼 복잡한 속에서도 대중적청년조직인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신 우리 수령님의 업적은 얼마나 크나큰것인가. 민청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청년들은 력사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등장하게 되였으며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뭉쳐 새 조국건설을 힘껏 떠메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어찌 그뿐이랴.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시대적조건과 청년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3(1964)년 5월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서 민청조직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청년중시정치를 펼치신 어버이장군님은 우리 청년운동을 주체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조선청년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주체85(1996)년 1월 창립 5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대표자회에서 사로청조직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높이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후비대이고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라는 고귀한 칭호도 안겨주시였다.

장구한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부대로 내세우시고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의 품속에서 이 땅우에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력사는 굽이쳐흘렀다.

오늘 우리의 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청년강국의 새시대를 맞이하였다.

위대한 한별 만세를 부르던 김혁, 차광수세대의 넋을 죽어도 버릴수 없는 혁명신념으로 간직한 계승자들의 대군, 리수복, 조군실세대의 불타는 애국심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전위투사들의 대군을 가진 우리 조국의 하늘가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이 세차게 나붓긴다.

조선청년운동은 력사도 위대하고 미래도 창창하다.

본사기자

혁명의 년대들이 전하는 청년영웅들의 위훈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영광넘친 길을 걸어왔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이룩한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은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조국의 강성번영도, 청년들의 보람찬 삶도 있다는 고귀한 철리를 력사의 갈피에 아로새기였다.

혁명의 전위들이 이룩한 승리

우리 혁명의 붉은 기폭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피로써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던 나날에 수령결사옹위정신, 일심단결의 고귀한 전통을 창조한 청년혁명가들의 자욱이 진하게 슴배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청춘들이 피와 땀을 바쳐 가꾸고 이룩해놓은 모든 열매들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되며 그 재부를 이루어놓은 주인공들에 대하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는것이라고 추억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인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열혈청년들은 나라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가장 암담하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해방위업실현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친 혁명의 전위들이였다.

민주수도건설의 애국자

해방후 우리 청년들은 민청의 기발아래 굳게 뭉쳐 새 조국건설을 적극 떠밀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보통강개수공사로부터 시작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시고 이 투쟁에로 평양시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청년들도 보통강개수공사를 단 5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데 앞장섰다.

하기에 보통강개수공사완공경축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분은 민주건설에서 승리자의 영예와 애국자의 칭호를 지니였으며 우리 나라 민주건설력사에 아름답고 가치있는 한페지를 남기였다고 열렬히 축하하시지 않았던가.

해방된 조선청년들의 기개가 나래치는 속에 보통강개수공사만이 아닌 방대한 건국사업들이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진행되게 되였고 민주조선의 창조물들이 일떠서게 되였다.

길이 빛날 위대한 공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청년들에게 조국은 곧 수령님의 품이며 조국이 있고서야 청춘도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새겨주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영웅으로 자라났다. 전화의 불비속에서 배출된 수많은 영웅들중에 440여명의 영웅들이 민청원들이였다.

그들속에는 턱으로 중기압철을 눌러 적들을 전률케 한 조군실영웅도 있다.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에 이런 말을 남기였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힘껏 싸우다 죽는것은 다시없는 영광이다. 내 팔다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나의 심장이 고동치는 한 나의 증기는 결코 복수탄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리수복, 조군실세대의 청년들은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다.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키우신 청년세대들은 《김일성장군만세!》를 높이 부르며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이 땅에 승리의 7.27을 안아왔다.

천리마를 타고가는 첫 부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장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한것도 청년들이였다.

그들은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던 빈터우에서 미제를 때려부신 기세드높이 복구건설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영웅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쳤다.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던 그때 청년들은 투쟁의 불길이 되고 돌격의 나팔수가 되여 시대를 들었다놓았다. 천리마를 타고가는 첫 부대!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주—하성사이 철길공사에 참가한 청년건설자들에게 안겨주신 칭호이다.

우리 청년건설자들은 방대한 이 공사를 75일만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불과 36.2㎞밖에 안되는 사리원—하성간 광궤철도부설공사를 2년동안 걸려 하였다는 일제때의 그것과 오늘의 이 현실을 대조해보라!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청년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은 주체47(1958)년 8월 1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이다.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산으로, 바다로, 개발지로 달려나간 천리마시대 청춘들은 이렇게 투쟁하였다.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재부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진 영웅전의 갈피에는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서 불굴의 기상을 높이 떨친 선군시대 청년들의 헌신사도 있다.

안변청년발전소와 청년영웅도로, 흥주청년발전소와 함흥시청년염소목장, 영광청년양어장과 태천3호청년발전소…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청년들이 일을 많이 하였다고, 청년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인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청춘을 빛나게 살자는 구호를 들고 총포성없는 격전장에 파감히 뛰여들어 백두의 후손들답게 피와 땀으로 위훈의 서사시를 엮어나가는 청년들의 대부대는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민족의 가장 큰 재부이고 자랑중의 자랑이다.

선군청년문화의 창조자

한해전 5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감사문도 보내주시였다.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아름다운 꽃으로, 사회주의미덕의 참된 전형으로 키워내고 온 나라의 축복속에 미풍선구자대회까지 크게 가지는것은 청년중시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운 로동당시대,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강국인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희한한 경사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다면 우리 당이 키운 이 나라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였던가.

그속에는 그애가 보여주고 간 깨끗한 정신은 영원히 남아 앞으로 이 나라의 더 훌륭한 젊은이들을 키워내게 될것이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필을 써주신 인풍골의 나어린 청년동맹원도 있었다. 그속에는 타번지는 화염속에 뛰여들어 구호나무들을 지켜내고 당가에 실려가면서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노래를 부른 불사신의 청춘, 북변의 청년보안원들도 있었다.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수백만 청년전위들은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오늘도 빛나게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금 분

하늘땅에 넘치는 500만 청년전위들의 당중앙결사옹위의 맹세

청춘, 그 이름 빛나 젊음에 넘친 조국

우리 조국은 미더운 청년들에 의해 젊음에 넘치고있다.

천리방선초소들과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 혁신의 동음세찬 공장, 최첨단돌파전이 벌어지는 과학연구기지들…

진정 이 땅의 그 어디에서나 지칠줄 모르는 혁명열과 영웅적투쟁신화로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는 우리의 자랑스럽고 미더운 청년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백만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뭉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라난것은 우리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며 커다란 승리입니다.》

지난해 10월 청년돌격대원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여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산세험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청년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과 눈물겨운 위훈의 력사를 더듬어보시는듯 우리 원수님께서는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한두해도 아닌 오랜 나날 살을 에이는 북방의 혹한속에서 함마와 정대로 천연암반을 까내고 산을 들어내면서 언제를 쌓고 물길굴을 한치한치 열어나간 돌격대원들의 로력적위훈을 그 어떤 글과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고, 강추위에 운반수단마저 얼어붙으면 썰매전, 발구전으로 수송로를 열어나간 돌격대원들과 서두수의 차디찬 물속에 뛰여들어 온몸이 《얼음기둥》이 되여 베루를 떠받든 결사대원들을 비롯하여 발전소건설을 위해 바쳐온 청년들의 혁명성과 희생성, 애국심앞에서는 누구나 다 머리를 숙일것이라고…

정녕 우리 원수님 아니시면 그 누가 이렇듯 청춘시절을 백두대지에 묵묵히 바쳐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을 온 세상에 자랑높이 내세워줄수 있으랴. 이것은 천만군민이 터친 심장의 목소리이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끼듯이 백두청춘들의 아름다운 인생관에서 우리는 선군시대의 청년들이 지닌 고상한 정신세계의 높이를 본다.

당의 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 고향을 멀리 떠나 심심산중의 발전소건설장과 새로운 개발지들에 달려나가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가는 청년들,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미풍의 청년선구자들은 그 얼마인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청년들도 많지만 우리 청년들처럼 고상한 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젊음을 자랑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여 사회가 저절로 들끓고 활력이 넘치는것은 아니며 혁명의 피줄기가 그대로 이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태양의 빛발을 떠나 아름다운 꽃을 생각할수 없듯이 우리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을 떠나 이 땅의 수백만 청년들의 삶과 존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청년강국!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숭고한 부름에 청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의 정치가 꽃피는 우리 조국은 젊음에 넘쳐있다.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해주시고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우리 청년들의 밝은 앞날을 더 높이, 더 넓게 열어주신 우리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어 우리 수백만 조선청년들은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조국보위초소와 강성국가건설의 대고조전역들마다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는것이다.

선군조선의 긍지와 자랑인 수백만 청년들의 모습에서 천만군민은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젊음에 넘쳐 더욱 륭성번영할 백두산대국, 청년강국의 모습을.

본사기자 채 히 성

석탄공업부문에서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자

당정책으로 무장하면 답력도 배짱도 백배해진다

석탄공업성 일군들과 정무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목표는 높이, 실천은 혁명적으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뼈에 쪼아박고 전투현장으로 떠나가는 석탄공업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올해엔 수십개 대상의 새 채탄구역이 련이어 조업하게 되며 수십만m의 굴진목표와 방대한 생산목표수행도 문제가 없다.

화력발전소들과 금속공장들, 화학공장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석탄보장은 넘려말라.

만나는 일군들마다 배심이 커졌고 투쟁기세 또한 하늘을 찌를듯 높다는것을 느낄수 있다.

하다면 어디서 이런 배짱과 담력이 나오는가.

새해진군길에서 높이 울리는 성일군들의 대답은 하나와 같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뼈에 쪼아박으라!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의 대경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닮으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감격과 흥분속에 받아안고 새해진군길에 오른 성일군들과 정무원들에게 있어서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소식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증산의 보폭을 더욱 힘차게 내딛게 한 계기로 되였다.

지난해말 성에서는 당창건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속에 마련된 한해투쟁성과를 공고히 하며 더 높은 고지에로 치달아오르기 위한 새해의 전투목표를 세웠었다.

그때 성일군들 누구나가 현조건에서는 최대의 목표라고, 이만한 성과를 이룩하면 대단한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는 뚜렷치 않았다.

그러나 뜻깊은 올해 성의 전투목표는 새해에 들어와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타산밑에 설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의 구절구절은 성일군들의 경제작전과 지휘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리정표로 되였고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소식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방식을 그대로 본받아 과학적인 타산으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야 한다는 열망을 더해주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올해 성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의 생산을 한계단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 단위들이 총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도록 하여 혁신의 그 불길이 온 나라 탄광들에로 타번지도록 하는것을 첫째가는 목표로 내세웠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주요탄광들의 채탄장들을 심부에로 이동전개하여 당 제6차대회를 드높은 증산성과로 맞이하던 그때와 같은 기적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천성-성산천자연호름식배수갱공사에서 승리의 돌격로를 열며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형봉탄광 형봉갱을 비롯한 각지 탄광들에서 61개의 새 구역을 조업하여 100만t의 확보탄량을 마련할 통이 큰 목표가 제시되였다.

탄광들의 석탄생산을 늘이고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성작전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당정책의 요구대로 생산의 량적장성일변도에서 질적지표개선에로 완전히 방향전환을 한것이다.

최근년간 천성청년탄광 채탄장들에서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는 관성식적재운반설비와 사슬식콘베아, 동발인양기를 채탄막장들에 빠짐없이 넣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이 세워졌다.

또한 굴진막장들에 공기식적재기를 비롯한 버럭적재설비를 마련해주기 위한 대책도 따라서고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든데 맞게 성에서는 각지 탄광채탄장당 월생산성, 성적인 작업굴진에 의한 탄층속갱도보유m수, 굴진막장당 월전진m수를 비롯한 질적지표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갱신하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생산과정에 끊임없이 소비되는 동발나무를 보다 적게 쓰기 위한 일군들의 사업측면도 혁신적이다.

V형쇠동발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으며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부재공장의 세멘트생산에 의한 영구화블로크생산경험을 순천, 득장 등지의 탄광련합기업소에 일반화하여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면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취해지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정대와 경질합금을 비롯한 탄광설비들과 부속품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올해에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의 장쾌한 뢰성과도 같은 증산성과를 안아오리라는것은 확정적이다.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정초부터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그러나 아직은 뜻깊은 새해전투의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드높은 증산목표를 무조건 돌파하려는 성일군들과 정무원들의 충천한 기세에서, 통이 크게 설계하고 배심좋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이들의 달라진 일본새에서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증산성과를 내다보게 된다.

본사기자 강명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자면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석탄이 팡팡 나와야 화력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줄수 있고 강재와 비료, 세멘트 등이 쏟아져나오게 된다.

이렇게 놓고볼 때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전인민적총진군의 성과여부는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성과에 달려있다고도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진군길에 떨쳐나선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기세는 고도로 앙양되였다.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소식에 무한히 고무된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새해 첫 전투를 본때있게 내밀어 련일 흐뭇한 생산성과를 안아오고있다.

새해 첫 전투에서 타오른 증산의 불길이 계속혁신의 불길로 이어지게 하자면 석탄공업부문 일군들의 경제작전과 지휘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당정책에서 증산의 열쇠를 찾아쥐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진격의 돌격로를 여는것을 경제사업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채굴조건이 유리하고 전망이 좋은 대상들에 과학기술력량과 투자를 집중하여 채탄공 일인당 생산성을 부쩍 높이는 방향에서 탄광들의 발전전략을 혁신적으로 세워야 한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탄광부문이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이 실천에서 온을 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탄부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최상의 높이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내밀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탄광련합기업소, 탄광들이 생산적앙양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석탄을 충분히 대주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려야 한다.

각지 탄광들에서 동발나무를 보다 적게 쓰거나 전혀 쓰지 않으면서 석탄생산을 늘이는데로 경제조직사업을 적극 지향시켜 나라의 산림이 더욱 푸르러지게 하면서도 석탄산을 높이높이 쌓아야 한다.

각지 탄광청년돌격대원들은 당의 명령지시를 피끓는 심장으로 간직하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운 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로 지하막장마다에서 청년돌격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석탄전선의 영웅청년신화를 자랑스럽게 창조해나가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피끓는 심장에 새겨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석탄생산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증산의 동음높이 기세좋게 전진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막장을 들었다놓는 련속천공, 련속발파소리, 벨트콘베아에 실려 끊임없이 쏟아져나오는 석탄폭포, 련이어 나붙는 혁신의 새 소식이 전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와 탄광들의 일군들모두가 갱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어깨겯고 석탄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 5갱과 1갱의 채탄막장들은 석탄증산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올리굴이 많아 다른 막장들보다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이곳 채탄중대들에서는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련속탄벽을 밀어내고있다.

채탄중대들에서 얼마나 드세게 석탄을 캐냈던지 석탄을 미처 뽑아내지 못할 정도이다.

5갱의 탄부들속에 들어가 석탄생산지휘를 하던 초급당비서 리동철동무가 그들의 성과를 축하하며 헌헌하게 말하였다.

《동무들, 우리모두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 일어나 천지를 진감하고있는 벅찬 시대적요구에 맞게 석탄증산의 자랑찬 성과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합시다.》

8갱, 9갱 탄부들이 일정계획을 1.2배로 수행하고있을 때 11갱, 3갱 일군들과 탄부들도 질좋은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하여 화력발전소에 보내주어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을 안고 석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그들만이 아니다. 김유봉청년돌격대의 굴진공들은 도의 탄광청년돌격대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년간 굴진계획을 무조건 끝내겠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맹세한 그날부터 매일 기본굴진계획을 1.8배로 수행하는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령대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온 탄전이 떠나갈듯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는 속에 석탄생산은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년초부터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는 3갱 일군들과 탄부들은 생산되는 석탄에 하나의 버럭이라도 섞일세라 왼심을 쓰며 힘찬 생산돌격전을 벌려 석탄생산에서 계속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5갱, 6갱, 1갱에서는 일군들이 탄부들속에 들어가 석탄증산으로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자고 하면서 화선식정치사업으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매일 계획을 1.2배로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천성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도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에 완전성공한 소식에 접하고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10갱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불같은 열의를 안고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해나가고있으며 5갱, 6갱, 부흥갱 일군들과 탄부들도 앞선 채탄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계속 늘여가고있다.

탄부들의 힘찬 투쟁으로 석탄생산실적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혁신 또 혁신, 전진 또 전진, 이것이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에 화답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선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의 드높은 열의이다.

특파기자 리혁철

소공구로부터 압축기까지

덕천탄광기계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덕천탄광기계공장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공장의 생산수준은 대단하다.

지난해 12월 한주일동안에만도 많은 탄차를 탄광들에 생산공급한 공장에서는 12가지 지표의 소공구와 메루못, 나사, 전차대치차, 소치차, 정머리 등 가지가지의 탄광설비부속품이 생산되여나오고있다.

본체만 남아있던 감속기, 권양기, 압축기도 이 공장 로동계급의 손에 들어가면 새 제품 못지 않게 수리되여나온다.

주목되는것은 련합기업소 탄광들에서 요구되는 무수히 많은 소공구들과 탄광설비부속품생산, 주요설비수리를 공장에서 담당하고있다는 점이다.

다른 련합기업소들에서는 나사와 같이 소소한 설비부속품은 많은 경우 개별적탄광들의 공무기지에서 생산하고있다.

그러면 어느쪽이 더 실리있고 경제적인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물론 소소한 부속품까지 다 생산하자면 공장에 부하가 걸리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적탄광들에서 필요한것을 자체로 보장한다고 저마끔 유도로를 놓는다면 그만큼 전기가 많이 소비되고 전문기계공장에 비해 질보장에서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된다는것은 명백하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탄광기계공장의 생산과 탄광들의 수요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다.

우선 탄광기계공장 소재생산공정과 열처리시설들을 현대화하도록 조건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생산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철저히 선행시켰다.

뿐만아니라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은 압축기, 권양기와 같은 설비들도 자체로 보수하는데 필요한 능률높은 가공설비들을 보강해주었고 공구보장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렇다고 생산지휘와 관리까지도 련합기업소일군들이 도맡아안은것은 아니다.

공장이 제발로 걸어가도록 조건을 지어주고 대중의 창발적의견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떠밀어준 책임일군들의 노력속에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

지배인 김성일, 기사장 최명수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공정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가는데 중심을 두고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그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로순찬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술일군들은 생산자대증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새 지표개발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고있다.

한편 련합기업소에서는 탄광들에서의 수요를 정확히 장악하고 제기일에 보장해주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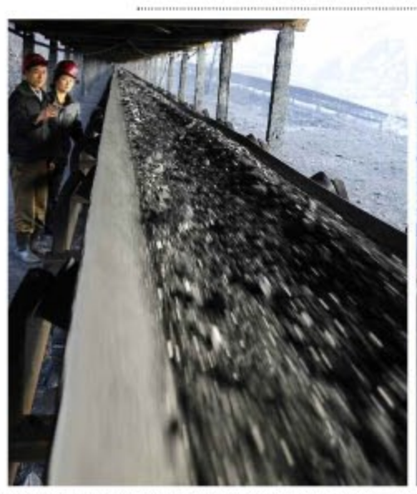
그리하여 탄광일군들이 소공구나 부속품문제로 머리를 쓰며 분주히 오가던 일이 없어졌다.

련합기업소이동참모회의도 걸린 문제들에 대한 진단으로 끝나는 회의가 아니라 이 막장에 압축공기가 약하다면 압축기수리대책을 세워주고 저 막장에서 운반문제가 제기되면 권양기와 감속기의 능력을 높여주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따라서는 회의로 전환되였다.

이렇듯 덕천탄광기계공장은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몫을 담당수행하는 보배공장으로 되고있다.

각지 탄광기계공장들에서 이 공장처럼 막장소공구와 설비부속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한다면 뜻깊은 올해에 더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기업소 남덕탄광에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북창지구탄광련합

정주혁명사적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정주혁명사적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가 17일에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사적관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강성철 정주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정주혁명사적관창립 4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된 이듬해인 주체35(1946)년 6월 정주군(당시)을 찾으시여 당사업과 경제사업, 인민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반사업을 따뜻이 보살펴주신 때로부터 시를 끊임없이 찾고찾으시며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시켜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십차례에 걸쳐 정주시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조직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관철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당사업의 중심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주체65(1976)년 1월 정주혁명사적관이 개관되여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이 마련되고 주체88(1999)년 2월에는 혁명사적비가 건립됨으로써 정주땅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갈수 있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사적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창립후 지난 40년간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정주혁명사적관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적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사적관참관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 화선식이동강의를 활발히 벌려 시에 깃들어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킬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사적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혁명의 명맥을 지켜가는 성스러운 초소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안고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박봉주총리 2.8직동청년탄광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가 석탄증산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직동의 탄부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여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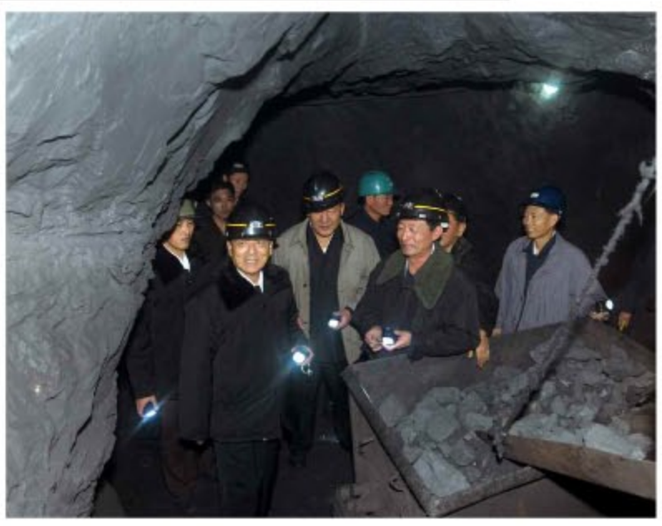
총리는 탄광의 개발정형을 알아본 다음 6갱의 전투장들을 돌아보면서 갱작업의 기계화실태와 굴진정형, 운탄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15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는 탄부들을 축하해주었으며 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석탄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고무해주었다.

그는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공업의 식량인 석탄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고 선탄에 힘을 넣는 등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897호 주체105(2016)년 1월 12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부재공장
강계포도술공장

2중3대혁명붉은기

평양밀가루가공공장 밀가루직장
룡등탄광 1갱 굴진3소대
강계목재가공공장
룡양광산 포거농목장 농산제9작업반
풍서군 로흥협동농장 제4작업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연신직장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공구생산과
만경대천석식당

3대혁명붉은기

평천구역종합식당
락랑대성피복공장 재단작업반
안주고치생산사업소 미상작업반
증산군 발산협동농장 제5작업반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1직장
정주시 남양협동농장 제3작업반
태탄광산 수송대
옹진군 선풍협동농장 제1작업반
연산군민발전소
고성과수농장 묘포작업반
김책대경수산사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관2직장
회령관
고원군 덕지협동농장 제2작업반
혜산시 신장남새전문협동농장 제2작업반
류경건설관리국 운수기동련대 1대대
평양시건설관리국 동구산업건설사업소 설비직장
국가과학원 도시경영과학연구소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평양기계화사업소
청년호텔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세거리모란상점
평양제1음악학원 성악학부
북창역
청진철길대 봉강철길소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898호 주체105(2016)년 1월 12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영예의 붉은기

신의주시 남하소학교
은파군 광명고급중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을 자랑하라

조국청사에 별처럼 빛나는 그 이름 청년영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온 백두산청년대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가슴흐뭇하게 안겨온다.

백두의 칼바람에 신념을 벼리며 부강조국의 만년언제를 쌓아올린 미더운 청년돌격대원들이며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리는 길에 청춘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쳐온 청년과학자들, 금주고도 살수 없는 청춘시절을 조국보위초소에서 바쳐가는 영웅한 병사들, 자신보다 먼저 사회와 집단, 조국과 혁명을 생각하며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다해가는 미덕의 인간들이 조국을 빛내이는 영웅들의 거대한 군상이 되여 안겨온다.

어찌 그들뿐이랴.

머리에 흰서리 내렸어도 송남의 탄전과 강계청년발전소건설장, 해주—하성사이 철길공사장에서 위훈의 전설을 아로새긴 영웅들이 청춘의 모습으로 어려온다. 비록 우리곁에 없어도 불타는 고지에서 우리를 로동당원으로 불러달라는 한마디 부탁을 남기고 원쑤의 화점을 향해 내달리던 민청원이며 민주건국의 첫 기슭에서 동무들아 어깨겯고 김장군두리에 뭉치자고 노래부르던 열혈청년들의 모습도 방불하게 비껴든다.

사람의 한생과도 맞먹는 70년, 순간의 로쇠와 침체도 없이 영원한 청춘의 활력으로 승승장구해온 조선청년들의 70년력사속에 얼마나 많은 청년영웅들의 모습이 새겨져있던가.

잊을수 없다. 해방된 조국땅우에 하루빨리 민주의 새 나라를 세우자고 생산돌격에 앞장서던 민청원들의 모습을. 나라가 철을 요구하면 용광로를 일떠세우고 쌀을 요구하면 비료를 증산하던 그때 온 나라 인민이 그들을 로동영웅으로 떠받들지 않았던가.

지난날 왜놈의 노예로, 대포밥으로 값없이 사그라져가던 자신들을 공장으로, 농촌으로, 대학으로 불러주는 고마운 조국의 품을 지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한 우리 청년들이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제일 처음으로 화점을 막은 장태화영웅의 나이는 22살, 피뢰중앙청에 제일먼저 육박하여 공화국기발을 날린 고현빈영웅은 26살이였다.

단 한주일사이에 미제의 공중비적을 6대나 쏴떨군 김기우는 18살에 공화국2중영웅이 되여 세상을 놀래웠다.

그렇듯 강인담대한 영웅성의 원천이 무엇이였는가를 리수복영웅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라는 자기의 시에 그대로 새겨넣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 그것은 우리 청년들모두의 고귀한 생명의 은인, 아름다운 희망의 전부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원쑤의 폭탄에 강산이 통채로 불타던 그 엄혹한 나날에도 세계청년학생들의 축전장으로 싸우는 조선의 청년영웅들을 보내주신분, 적들의 공격이 쉬임없이 계속되는 전방의 고지들에서 전투원들을 소환하여 대학으로 불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조선청년들의 영웅성은 더욱 완강해졌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에서 자라난 영웅답게 우리의 청년들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년대들에 언제나 기적의 선구자, 시대의 기수가 되여 세인을 격동시키지 않았던가.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던 1960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공훈을 세운 로력혁신자들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바로 그 영웅들의 제일 첫자리에 새겨진 주인공은 23살의 애젊은 처녀 길확실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년도 못되는 사이에 두개의 작업반을 천리마작업반으로 만들어놓는 것과 같은 인간개조의 본보기를 창조한 길확실영웅을 천리마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청년들의 위훈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세상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청년영웅의 대는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대중적영웅주의의 새로운 장은 펼쳐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조직된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위대한 전환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빛나게 장식한 청년영웅들의 집합체였다.

바로 그들이 나라의 철도전기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였고 북부철길을 비롯하여 조국의 깊고 험한 산발속으로 새 철길을 늘여나갔다.

사로청(당시) 제6차대회가 열렸던 1971년부터 사로청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1981년사이에만도 10만여명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녔다는 하나의 사실만 보아도 영웅적위훈으로 당을 받들어온 우리 청년들의 진모습을 엿볼수 있는것이다.

흐르는 세월속에 혁명의 정세에는 변천이 있었어도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청년들의 심장의 열도는 백배, 천배로 강해졌으니 우리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1990년대에 우리 청년들은 500만이 총폭탄이 되자는 구호를 웨치며 수령결사옹위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의 앞장에는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의 아들이라고 웨치며 적구에서 원쑤들과 싸워이긴 김철진영웅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보위하고 동지들의 귀중한 생명을 위하여 터지는 수류탄을 한몸으로 막은 한영철영웅과 같은 군복입은 청년전위들이 서있었다.

청년영웅도로건설장에서 청춘을 빛내이고 그후에는 김광철영웅이 지켜섰던 최전연초소의 군인가족이 되여 빛나는 삶을 바친 리경희영웅처럼 조국땅 가는 곳마다에서 조국보위와 강성번영의 성새를 더 높이 쌓아올린 청년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사회의 우환거리가 되여 할아버지, 아버지세대가 공들여 쌓아올린 탑을 허물어버리는 다른 나라의 청년들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숭고한 정신은 21세기에로 빛나게 이어졌다.

선군시대 첫 대학생공화국영웅인 유경화동무, 여기에 그가 남긴 소박한 시의 한구절이 있다.

경사로운 4월에 피여난
아름다운 꽃이라
나의 이름은 경화
내 언제나 피리라 태양의 꽃으로
끝까지 따르리라 태양의 위성되여
심장으로 지키리라 우리의 장군님을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4월의 봄날에 태여난 자신의 삶을 오로지 수령을 위하여 바쳐갈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운 그였기에 18살 꽃나이청춘을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서슴없이 바친것 아니랴.

수령과 청년영웅은 떨래야 뗄수 없는 하나의 피줄로 이어져있었으니 그 길에서 목숨바친 청년전위들의 위훈을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는다.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나무를 목숨바쳐 보위한 조선인민내무군 군인이였던 리선일동무, 생의 마지막순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손에서 놓지 않은 평양외국어대학 학생들이였던 강명산, 리일진, 박세운, 황철웅동무들, 14살 애어린 나이에 수령결사옹위의 꽃으로 피여난 신흥땅의 한현경학생, 사품치는 물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를 결사옹위한 라선시의 엄송화동무…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적셔주는 영웅적위훈으로 수령을 보위하고 혁명을 사수하는 우리 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의 진군길에서 용광로의 쇠물마냥 더욱 맹렬히 끓어번지고있다.

영웅적투쟁의 70년을 보내고 새로운 승리의 력사를 펼치게 될 청년강국의 숨결속에 영웅적기상이 태동하고있다.

보다 큰 승리, 보다 눈부신 위훈을 예고하며 맥동치는 그 숨결에서 조선청년들의 목소리가 울린다.

과연 어떤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될수 있는가.

백전백승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온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70년력사속에 그 대답이 있다.

영웅이 많은 나라,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수백만 청년들을 주체혁명의 혈통, 신념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사상과 신념의 강자, 시대의 영웅들로 키워내는 선군조선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 백두산대국이다.

수소탄보다 더 강위력한 청년영웅의 힘, 청년강국의 위용을 안고 우리 조국은 영원히 강성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승철진

용솟음치는 슬기와 열정으로

영웅청년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리

북방의 칼바람이 광란하는 여기 백암땅은 한낮에도 령하 수십℃를 오르내린다.

이런 엄혹한 강추위속에서도 우리 대대 전투원들은 3호발전소언제의 속벽타입 파제를 매일과 같이 넘쳐 수행하고있다.

눈시울마저 맞붙는 혹한속에서 혼합물이 얼어들세라 박막을 씌워가며 한m 또 한m 결사전을 벌려 언제를 쌓아가는 돌격대원들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지금 백두의 만년장설도 순간에 녹여버릴 거대한 열의 대하가 흐르고있다.

그렇다.

우리는 이 준엄한 투쟁의 전구에서 백두의 청신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자라난 백두청춘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속에 영웅으로 자라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청년투사들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백두청춘들의 담력과 기상은 추호도 흔들림없다.

백두의 용암마냥 굽이치는 우리의 전진을 막을 힘 이 세상에 없다. 오늘도 래일도 우리의 심장속에 고동치는 신념의 웨침은 오직 하나,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

이것이 바로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혁명의 분수령을 향하여 질풍쳐가는 백두청춘들의 드팀없는 의지, 영원한 활동방식이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함경남도려단 8대대장 리우호

강철기둥을 억세게 받들리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이것은 이 땅 그 어디서나 울려퍼지는 청춘들의 심장의 웨침이다. 그들속에는 우리 김철의 청년들도 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돌격전에서 우리 김철의 청년들도 용광로의 쇠물마냥, 가열로의 불길마냥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우리 김철의 청년들은 지금 지난해에 중요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완공한 성과에 기초하여 승리의 5월을 향한 큰걸음을 내짚었다.

당의 숨결에 보폭을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 청춘들의 가슴속에 용솟음치는 피끓는 힘과 열정에 현대과학기술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무엇이랴. 바로 이것이 우리 김철청년들의 심장의 분출이며 애국충정의 대답이다. 그 누구의 가슴에 손을 대보아도 하나의 박동이다.

우리 김철의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의 호소에 기적창조로 화답해나섰던 아버지, 어머니세대의 투쟁전통을 이어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 나라의 강철기둥을 더 억세게 떠받드는것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다하겠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간압연직장 로동자 김형석

수필 하늘의 꽃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붉은 매의 동음이 울릴 때면 나는 우리 원수님께서 영웅조선의 효녀, 선군조선 하늘의 꽃이라고 못내 대견해하신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군 한다.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초음속전투기를 단독으로 타고 만리창공에 번개같이 치솟아올라 희한한 비행술을 펼치던 처녀비행사들의 대담무쌍한 모습은 지금도 나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선군혁명의 제1선참호를 지켜선 인민군대도 청년군인집단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들마다에서 위훈을 떨치고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도 청년들입니다.》

처녀비행사,

그 장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조국의 하늘에 처음 새겨진것은 준엄한 전화의 나날이였다.

처녀가 비행기를 운전하겠다고 했단 말이지, 녀성의 몸으로 비행사가 되겠다고 지망해나섰으니 얼마나 장한 일인가고 하시며 조선의 훌륭한 녀성비행사로 잘 키우자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속에 원쑤격멸의 폭음을 울리는 우리 나라의 첫 처녀비행사가 태여났다.

뜻깊은 그날로부터 세대와 년대를 이어 억세게 자라난 유명무명의 처녀비행사들,

바로 그 장한 대오속에서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청춘의 사랑도, 한생의 행복도 푸른 하늘의 비행운과 더불어 찾는 부부비행사들의 보람찬 삶이 꽃펴났고 폭격기나 일반비행기로는 성차지 않아 최상급의 추격기를 타고 초음속으로 날으는 영용한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여났다.

비행복을 벗으면 금시 한가정의 사랑둥이, 옹석둥이로 될것만 같은 애젊은 처녀비행사들을 온 나라가 하늘의 꽃이라 부르며 떠받든다.

하늘의 꽃,

인생의 봄시절인 처녀시절에 희망과 행복의 꽃을 피울 곳은 많건만 어이하여 그들은 만리창공에서 청춘의 삶을 꽃피워가는가.

꽃은 대지에 뿌리를 박고 핀다. 허나 그 꽃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맑고 푸른 하늘을 떠나 생각할수 있으랴.

대지에 피는 하많은 꽃들의 아름다움을 지켜 조국결사수호의 은빛꽃보라로 흩날릴 불굴의 의지를 안고 사는 하늘의 꽃, 우리의 처녀비행사들,

그들의 모습 그리도 아름다운것은, 그 삶의 향기 그토록 그윽한것은 바로 그때문이 아니랴.

그렇다.

하늘의 꽃은 헌신의 꽃이다. 이 땅의 천만가지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켜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뿌리와도 같은 꽃이다.

선군시대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조국의 천리방선에서 핀다.

본사기자 허명숙

세상에 없는 부름—청년미풍선구자

청춘은 무엇으로 아름다운가. 이 땅의 청춘들은 무엇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꽃으로, 시대의 자랑으로 긍지높이 떠받들리우고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청년사업을 매우 중시하며 청년들을 굳게 믿고있습니다.》

우리 잠시 반세기전 《로동신문》에 실렸던 글을 더듬어보자.

《…꽃차는 주석단앞에 이르러 멈춰섰다. 한송이의 커다란 꽃속에서 흥남비료공장병원 2중천리마외과 과장 강하종, 간호원 함정희, 함흥의학대학 학생장판학과 함께 방하수소년이 나와 꽃묶음을 들고 주석단으로 향한다. 순간 군중들은 물밀듯이 앞으로 달려나온다. 시위대렬도 멈춰선다.

…3도화상이 전신의 48%에 미쳐 시들어만 가던 이 어린 꽃송이에는 오직 당의 뜻대로 살려는 붉은 의료일군, 붉은 학생들의 피줄이 이어짐으로써 정녕 천백년 지지 않을 꽃으로 다시 피여났다. 그러하여 지금 이 꽃송이는 자기를 소생시켜준 불보다 뜨거운 이 사랑의 밑뿌리를 길러낸 경애하는 수령의 품속으로 줄달음쳐가는것이다. 수상동지는 당의 깊고도 넓은 품속에서 소생한 이 한떨기의 꽃송이를 주석단판람대우에 안아올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였다. 그리고 강하종외과과장과 장판학학생의 손을 잡으시고 높이 추켜들어 흔드시였다.

뜨거운 그 무엇이 사람마다의 가슴을 친다. 이 순간 20만 시위군중들은 저마다가 심장으로 흐느껴운다. 그 누가 흥분과 감격의 눈물없이 이 광경을 볼수 있단 말인가. …》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한 평범한 소년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친 의료일군들과 청년대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로 온 나라가 들끓고있던 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함흥시군중대회의 감격적인 화폭을 전한 기사의 한토막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천리마시대는 온 나라 인민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밑에 이 땅우에 가장 고결한 인간사랑의 론리와 미덕의 경지를 개척해온 격동적인 시대였다.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무수한 미풍으로 강산을 울리고 시대를 진감시키던 그때 인간사랑의 서사시를 엮은 주인공들의 앞장에는 누가 서있었던가. 바로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이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함흥의 청년대학생들뿐만아니라 태풍에 휘말려 떠내려가던 조난선을 목숨바쳐 구원한 청년들과 얼음진 강물속에 뛰여들어 위험에 처한 7명의 애어린 생명들을 구원한 20살 꽃나이처녀를 비롯하여 천리마시대를 빛내인 미덕의 주인공—청년영웅들을 오늘도 잊지 못해하는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해주—하성사이 철길건설자들과 송남청년탄광 개발자들을 비롯하여 산과 바다, 전야마다에서 피끓는 청춘의 심장을 다 바쳐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세운 천리마시대 청년건설자들의 투쟁은 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는것인가.

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높이 발휘된 전세대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과 풍모는 오늘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살아 높뛰고있다.

잊지 못할 하나의 화폭이 숭엄히 떠오른다.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미풍은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바로 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정과 열을 다하여 따뜻이 품어주고 내세워주신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숭고한 미덕의 소유자,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오늘 우리 조국은 그처럼 미덥고 끝끝한 천하무적의 청년대군, 미풍선구자들의 대부대를 가진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자랑떨치고있는것 아니랴.

그렇다. 청년미풍선구자, 세상에 다시 없는 고귀한 그 부름과 더불어 우리 청년들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따라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사회주의의 본태와 대풍모를 앞장에서 꽃피워나감으로써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남호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결의에 넘쳐있는 금성정치대학 청년대학생들 —당창건기념탑에서— 본사기자 찍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을 뜻깊게 경축

청년전위들의 충정의 노래모임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 청년전위들의 충정의 노래모임 《위대한 태양과 불패의 청년강국》이 1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 선군시대 청춘들의 긍지와 환희가 모임장소에 차넘치였다.

서장 《금방석》,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로 시작된 노래모임에서는 조선청년운동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나갈 청년전위들의 신념의 맹세가 세차게 분출되였다.

트럼베트3중주와 합창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전세대 청년영웅들의 노래 《청년사회주의건설자행진곡》, 실화이야기와 합창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등에서 출연자들은 70년의 빛나는 력사에 새겨진 청년동맹의 자랑스러운 영웅적행로를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여온 청년전위들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실화연단과 어은금병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설화시와 남성중창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장내를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게 하였다.

합창과 무용 《우리 원수님》, 합창시와 취주악과 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으로 당을 결사옹위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달아주신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펴고 천만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울 피끓는 청춘의 열정과 기백을 남성기타병창 《장군님따라 싸우는 길에》, 혼성대중창과 합창 《조선의 모습》에 담아펼쳐놓았다.

종장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로 끝난 노래모임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를 따라 폭풍쳐 내달리며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투장마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떨쳐갈 청년전위들의 드팀없는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최룡해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경축연회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연회가 17일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청류관, 평양면옥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연회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연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은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이시며 그이의 품속에 안겨사는 조선청년들처럼 행복하고 긍지높은 청년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잊지 말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조선청년운동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청년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이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선봉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도덕기강확립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를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온 나라 전체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백두산청년강국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였다.

강철기둥을 억세게 받들리 힘있게 지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소식에 접한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1월에 들어와 1 400여t의 파철을 수집하여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도의 일군들은 파철수집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방도를 명확히 찾고 조직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는 한편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도검찰소, 도람사관리국,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등 도급기관들에서는 파철수집과 수송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이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철강재생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도인민보안국과 산하단위들의 일군들, 인민보안원들은 250여t의 파철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도안의 여러 기계공장들과 희천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수십대의 자동차에 파철을 가득 싣고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금속공장들의 로동계급을 찾아가 일손을 도와주면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고무해주었다.

강계시, 전천, 성간, 장강군 등 시, 군들에서도 파철원천을 적극 찾아내여 강철전선을 힘껏 지원하고있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애국의 한마음으로 많은 파철을 모아들였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의 하나인 금속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강철기둥을 굳건히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열의안고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 도무역관리국, 도검찰소 등 도급기관의 정무원들은 모아들인 파철을 수십대의 자동차에 실어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신의주시, 룡천, 구장군 등 도안의 시, 군들에서도 대중을 발동하여 수집한 많은 량의 파철을 금속공장들에 실어보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

희망찬 새해 조국통일운동의 력사적진군이 시작되였다.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밝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에 대한 무한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애국의 열정이 온 삼천리강토에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우리 민족의 드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지연되고있는 기본요인이 바로 외세의 반통일책동에 있다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바로 조선민족에 대한 외세의 침략책동을 끝장내기 위한 문제이다.

조국을 통일하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외세의 집요하고 악랄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고 전조선반도를 지배하기 위하여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더우기 미국은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해결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그것을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근본리익으로 보나 복잡단한 국제정세추이로 보나 지금이야말로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온 겨레가 사대와 외세의존을 반대배격하고 철저한 민족자주의 립장에 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우리 겨레는 곡절많은 민족사를 통하여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뼈아프게 체험하였다.

오늘도 나라의 절반땅을 타고앉아 식민지지배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외세와 사대매국에 환장한자들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흘리고있는 피가 그 얼마이며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또 얼마나 큰것인가.

특히 북남관계에 대한 외세의 간섭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현실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북남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일 때마다 흉악한 간섭의 마수를 뻗치며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미국에 계속 추종한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친미사대매국행위는 사상 최악에 이르고있다. 그들은 민족공조는 외면하고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의 파국을 심화시키고있다. 미국과의 예속《동맹》, 굴종《동맹》에 대해 수치스러운줄도 모르고 《최상의 동맹》이니 뭐니 하며 대미추종에 극성을 부리고있으며 상전과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기승을 부리면서 통일문제해결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생존방식으로 삼고있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민족적망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외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외세의존은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 출로는 오직 해내외의 온 겨레가 침략적인 외세와 그와 야합하여 민족을 반역하는 역적무리들을 반대배격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데 있다.

조국통일과 민족의 부흥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외세와 《공조》할것이 아니라 동족과 공조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사대와 굴종의 멍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협의해결하는 립장에 서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대단결의 길에 파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피줄도 하나이고 력사도 하나인 우리 민족이 서로 굳게 단합할 때 그 힘은 누구도 당해낼수 없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단결력이 강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힘과 지혜, 슬기를 합쳐왔다. 비록 우리 민족이 지금 외세에 의하여 분렬되여있지만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과 번영을 실현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의지를 가지고있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흘러간 북남관계발전의 력사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혈맥과 지맥을 하나로 이으면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토대를 쌓았다. 10.4선언의 채택은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위업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빛나는 성과이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으로 하여 시련과 난관은 크지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과 번영에로 나아가는 민족의 앞길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는것은 6.15통일시대의 실천을 통해 확증되였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대신해줄수 없다. 오직 나라의 통일과 번영에 겨레의 운명을 걸고있는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통일과 번영을 선사해줄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예속의 울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과 같다.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기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성원들이 어떻게 각성하고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온 겨레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신들에게 운명개척의 거대한 힘이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하나로 굳게 뭉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새해에도 우리 민족이 가야 할 통일의 길은 순탄치 않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주통일의 필승의 무기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있다.

우리 민족끼리!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애국의 리념을 심장에 새기고 민족자주통일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김 향 미

남조선 각계가 열렬히 칭송

승리의 근본담보

절세위인의 선군령도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따라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주체조선이 첫 수소탄시험완전성공의 장엄한 뢰성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고있다.

승리에 승리만을 거듭하는 공화국의 기상이 날로 떨쳐질수록 남조선 각계는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력사에 류례없는 대경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남조선언론계는 이북은 군용비행기뿐아니라 여러 기종의 민간용경비행기들도 마음먹은대로 만드는 높은 경지에 이르고 최개발된 신형반함선로케트의 시험발사,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단행하여 미국을 기절초풍케 하였다고 전하였다. 이 승리적전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언론들은 주장하였다.

대조선문제전문가들은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북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엄혹한 조건에서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라는 새로운 정신적무기로 군민을 무장시키시고 이북군의 싸움준비완성과 주민생활향상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총공세를 펴시였다고 피력하였다.

정세전문가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이북은 선대수령들의 유훈을 지켜 강성국가에로의 길을 자신만만하게 걸으며 민족사에 자랑할만한 뚜렷한 승리의 자욱을 새겼다고 격찬하였다.

한 재야인사는 강한 국력은 탁월한 령군술과 지략을 지닌 절세위인을 모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오늘날 이북은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지휘하에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고있다고 토로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을 기적창조와 승리에로 이끄시는 선군령장의 불멸의 령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은 《폭풍현지지도》, 《쉽게 볼수 없는 대파격》,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시찰의 련속》, 《군민이 열광하지 않을수 없는 현지시찰》 등의 글로 지면을 채웠다.

각계층속에서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싸이버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여 《불철주야로 이어지는 선군령도는 이북승리의 근본담보》, 《이북만이 아닌 이남민중의 생명과 생활까지 지켜주는 애국의 선군정치》와 같은 위인칭송의 글들이 인터네트싸이트들에 올라 만사람을 격동시켰다.

남조선 각계의 격정은 승리만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위업의 한길로 억세게 달려나갈 불같은 열의로 더욱 끓어오르고있다.

《무적필승의 령장께서 계시여 우리 겨레는 언제나 이기며 력사에 무궁번영할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될것이다.》, 《복받은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선군정치를 일심으로 받들자.》, 이것은 서울의 한 자유기고가와 대학교수의 심정만이 아니다.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 재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진행한 시국토론회에서 《자그마한 동요없이 초강경대응으로 나아가는 이북의 선군정치가 있어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천출명장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여 북미대결은 조만간 이북의 최후승리로 결속될것이다.》는 웨침이 터져나온것은 남녘겨레모두의 심정에 대한 반영이다.

《서프라이즈》, 《동북아의 문》, 《사람일보》 등 인터네트언론들은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계시여 민족의 미래,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창창하며 조국통일의 새 아침도 기어이 밝아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굳센 의지와 담력, 현명한 령도에 의해 미국이 무적필승의 이북앞에 완전히 무릎꿇고 항복서를 바칠때가 반드시 올것이라는 광주의 한 교수의 확신에 넘친 말은 그만이 아닌 남녘겨레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악과 매국이 판을 치는 암흑의 세상

계속 높아가는 청년실업률

남조선에서 청년실업률이 계속 높아져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13일 통계청이 《2015년 12월 및 년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데 의하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전해보다 늘어나 1999년 통계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은것으로 기록되였다.

이전에 남조선에서는 직업을 얻지 못하고있는 기간이 한주일만 되여도 실업자로 취급되였지만 1999년부터 그 기간이 4주일간으로 늘어났다 한다.

실업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그후에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는 사실상 력대 최고수준에 올라섰다.

남조선 《련합뉴스》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있는 리유가 취업의 문이 그만큼 넓어지지 않았기때문이라고 전하였다.

집권초기부터 친재벌정책에 몰두해온 통치세력의 비호밑에 업주들은 저들의 리윤만 추구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로동자들을 일터에서 몰아내는 한편 취업의 문턱을 높이며 인민들의 생존권을 심히 우롱하고있다.

그 부당성이 통계수자를 통해 나타나고있지만 집권세력은 오히려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임금삭감 등을 기본으로 하는 로동개악법안의 통과를 발악적으로 추진하며 민심에 칼질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현 집권세력의 악정이 계속되는 한 인민들이 언제 가도 로동의 권리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존권조차 바랄수 없다는것이 더욱 명백해지고있다.

파쑈경찰의 탄압소동에 항의

남조선의 《뉴시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중총궐기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파쑈경찰의 무차별적인 탄압책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경찰이 지난해 11.14민중총궐기투쟁 참가자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면서 탄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현재 알려진 수사대상만 하여도 1 500명이 넘는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지어 의심되는 사람이거나 평시 자주 집회에 참가하였던 사람이라면 무조건 탄압대상에 포함시키고 조사놀음을 벌리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경찰의 탄압목적이 1차민중총궐기투쟁당시 백남기농민을 사경에 처하게 한것 등 폭력진압의 진상을 감추고 날로 높아가는 반《정부》투쟁기운을 억누르려는데 있다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그들은 민중총궐기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소동에 강력히 대응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굴욕적인 《합의》 페기를 요구

남조선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시민단체인 《6월민주포럼》이 11일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합의》를 페기할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협상은 피해자를 배제한 밀실회담이라고 폭로하였다.

일본은 가해자로서 응당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배상해야 하겠으나 남조선당국에 몇푼의 돈을 먼저 주며 알아서 처리하라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단체는 규탄하였다.

단체는 지난 세기 조선반도와 동남아시아지역을 비롯한 세계를 유린한 일본, 섬나라 해적들이 오늘 또다시 온갖 살인무기를 휘두르며 세계지배의 야욕을 드러내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단체는 일본의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린 이번 《합의》는 전면무효이며 페기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랭혈한의 파렴치한 《양보》타령 ◇

남조선에서 청년실업문제는 결코 기성세대의 임금이나 조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남조선언론들은 보수당국의 계획이라는것이 청년실업문제해결에로 이어진다는 담보는 없다고 하면서 청년일자리조성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그를 위한 재정적지원에 적극 나서는것이 선차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이 작성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수집권세력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데는 새발의 피나 다름없는 푼돈을 처넣었다. 그리고는 손쉽게 《아버지세대의 양보》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조성한다고 생색을 내고있다. 근로인민들의 등껍질을 벗겨 반역《정권》을 유지하고 제 배를 불리여온 역적무리의 못된 악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에 돈 몇푼 쓰는것을 그리도 아까와하는 남조선집권자가 동족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도발소동에는 돈을 물쓰듯 탕진하고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전 어느 한 나라의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남조선당국은 엄청난 액수의 무기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규모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 얼마나 대조되는 현실인가. 남조선집권자가 청년들의 심각한 일자리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저들의 책임은 외면하고 《아버지세대의 양보》니 뭐니 하며 근로인민들의 고통을 더욱 증대시키는 반역적망동을 저지를수 없을것이다.

더우기 올해부터 남조선에서 정년퇴직나이가 달라지면서 구조조정의 칼날은 영낙없이 청년들을 겨누게 되였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가 《부모에게는 임금삭감이, 자식에게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차례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한것이 현실로 증명되고있는셈이다.

결국 남조선집권자의 처사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자는것이 아니라 《아버지세대의 양보》라는 말장난으로 저들의 반역적정체를 가리우고 날로 고조되는 반《정부》기운을 가라앉히기 위한 기만적술책인것이다.

갖가지 명목의 세금과 불어나는 빚으로 가뜩이나 기를 펴지 못하고있는 남조선의 근로인민들이 얼마 안되는 임금마저 삭감당하는것만도 억울한데 자식들의 일자리문제해결의 길은 점점 좁아지고있으니 그야말로 이중삼중의 민생고가 아닐수 없다.

자식을 낳아보지 못하고 남의 염병을 제 고뿔만치도 여기지 않는 랭혈한이 권력의 자리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언제 가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 그러니 결론이야 명백하지 않은가.

본사기자 심 철 영

자강력, 이것이 기적창조의 비결이다

박천견직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박천견직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들은 창조로 들끓고 기적으로 충만된 지난해에 공장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기세로 새해의 첫걸음부터 신심에 넘쳐 생산활성화의 큰 보폭을 내짚고있다.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더 높이 들고나갈 때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철의 진리를 뼈에 새겨줍니다.》

공장을 찾은 우리에게 한 지배인 김영남동무의 확신에 넘친 말이였다.

하다면 이 공장 일군들은 어떤 방법론과 묘술로 생산활성화의 큰걸음을 내짚었는가.

기적창조의 원천—대중의 정신력발동

대중을 발동하고 불러일으키는데서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은 그 마음속에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15돐이 되는 뜻깊은 지난해에 비로도와 담요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겠다는 공장로동계급의 열의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다.

앙양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자면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가. 여기에서 공장일군들이 주목을 돌린것이 있다. 그것은 이미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증산경쟁을 더 폭넓고 깊이있게 로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이 창조된 이 하나의 성과속에 대중의 정신력발동의 위력이 그대로 비껴있다고 기사장 오금단동무는 말하였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기대공들간에, 다음에는 작업반간, 직장간에 사회주의경쟁이 세차게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비로도직장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집단적혁신운동으로서의 경쟁바람이 대중의 정신력폭발에서 얼마나 거대한 힘을 발휘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이런 실례가 있다. 지난 시기의 직기와 성능이 다른 비로도직장의 유연창대직기의 회전수문제가 일정에 올랐다. 한것은 현재의 직기회전수로는 직장앞에 맡겨진 비로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없기때문이였다. 많은 기술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방도를 모색하였다.

직기를 개조하든지 아니면 실을 바꾸든지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도저히 회전수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이였다. 이런 때 직장장 김학철동무를 비롯한 직장의 일군들은 원인을 설비나 원료조건에서만 찾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주인인 우리에게 직기의 회전수문제를 풀수 있는 열쇠가 쥐여져있다.

관점을 이렇게 세운 직장의 일군들은 기대공들속에 깊이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직기회전수를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나갔다. 레를 들면 천을 짤 때 실이 끊기는 률을 줄이자면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인가, 기대가 돌아갈 때 실오리가 엉키지 않게 하려면 배렬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도루마리를 교체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등 직기의 회전수를 늘이는데 작용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깐깐히 따져보았다. 그런 다음 처음부터 기대공들에게 높은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능이 높은 직포공들인 유설경, 백은혜동무들을 미리 준비시켜 그들이 좋은 경험을 발표하게 하였다. 직포공들에게 얼마든지 우리 기술로 직기회전수를 늘일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직포작업반의 직포공들속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직기회전수문제가 설비나 원료의 불합리성에 있지 않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체험한 그들은 앞선 기능공들의 경험을 하루빨리 받아들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이러한 기술기능수준제고를 직장에서는 작업반간 경쟁을 통하여 심화시켰다.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었다. 기대공들사이에, 작업반호상간에 치렬한 기술경쟁이 벌어졌다. 남먼저 일터에 달려나와 기술기능을 숙련하는 직포공들이 늘어났고 오랜 기능공들은 신입로동자들을 스스로 맡아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애썼다. 수리공들은 또 그들대로 직포공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직기회전수제고에 지혜를 합치였다. 직포1작업반 반장 오명진동무는 수감장치 신호편을, 수리공 김명성동무는 창머리판용수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는데 성공하여 직기의 고속도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속에 직장에서는 직기회전수를 종전보다 분당 80회전이상 더 늘이는 기적을 창조하였고 이 직장에서는 지난해에 비로도생산계획을 당창건일흔돐까지 수행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대중의 정신력은 무한하며 그것을 어떻게 조직발동하는가에 따라 그 위력이 과시된다는것을 공장의 일군들은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속에서 깊이 체험하였다.

자기것이 제일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을 철저히 뿌리뽑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데서 이들이 들어선 중요한 고리의 하나였다.

담요직장의 날염벨트를 우리 식으로 개조한 이 직장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과정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 어느날, 쉼없이 돌아가던 날염작업반의 벨트가 멎어섰다. 수십m나 되는 벨트의 중간부분이 예상치 않게 뭉청 끊어졌던것이다. 끊어진 벨트를 다른 단위에 주문한다면 적어도 반년이상은 걸린다는것을 알았을 때 모두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온 직장이 어린이담요를 더 질좋게 생산하여 하루빨리 육아원, 애육원에 보내주자고 분과 초를 쪼개가며 밤낮으로 뛰고있던 때에 뜻하지 않게 가로놓인 난관앞에서 그들은 일시 주춤하였다.

다음순간 날염벨트의 가동이자 담요생산이며 나아가서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킬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신념문제이라는데로 그들의 생각은 도달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은 결코 허공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생기는가. 자기 힘과 지혜, 재능을 믿는데서 생긴다. 남만 쳐다보는 약자가 되지 말고 제 힘을 믿는 신념의 강자가 되자.

현장으로 달려나온 직장의 일군들이 로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가슴속에 신념의 불길을 지펴올리였다.

아직은 방도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굳건히 자리잡은 자기 힘, 자기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채본현상공 합철민동무가 주저없이 개조작업에 달라붙었다. 작업반장도 책임기사도 말없이 합세해나섰다. 그들은 접착제해결방도부터 먼데서 찾지 않았다. 자기들이 채본에서 쓰는 접착제를 리용하자는 의견에 도달했다. 그들은 가장 합리적인 값을 계산한데 기초하여 습기를 견디여낼수 있게 적합한 가열과 누름작업을 진행하면서 긴장하게 개조전투를 벌리였다. 이렇게 낮과 밤이 흘러 드디여 아흐레만에 날염벨트의 가동은 시작되였고 그대로 성공이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날염벨트의 개조작업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은 온 직장안에 자력갱생의 열풍이 더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전공 윤영찬동무를 비롯한 기능공들은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살려낼수 없다던 광택전보기 1차열로라를 대담하게 분해하여 우리 식으로 개조하였고 뒤이어 예비전보기 열로라도 자진하여 맡아 훌륭히 개조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자력갱생은 마땅히 창조적이여야 한다. 새것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력갱생은 자력갱생이라고 말할수 없다.

기술발전부원 안봉남동무는 로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현대적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는 한편 자신이 솔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창안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고있다.

대담하게 달라붙어 2대의 양수기를 새롭게 개조하고 폭출기 칠포 수백개와 폭출기 칠포 릴풀기누름솔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한 염색직장 직장장 안영일동무와 배창일, 강금표동무를 비롯한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이 맡겨진 염색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도 결국은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는 관점에서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 높이 들고 자기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데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이 공장 일군들의 경험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남의것을 쳐다보면 머저리가 되고 제정신을 가지고 제힘을 믿으면 천하를 얻을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실천으로 새겨주었다.

본사기자 명 홍 숙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축하하여

침략자들에게 굴하지 않는 강의한 나라

여러 나라 인사들 전적인 지지 표명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이딸리아, 브라질 인사가 축하하였다.

이딸리아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의 조직 위원장인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연구 이딸리아위원회 위원장 미리암 뻴레그리니 페리는 8일 뻴레암비엔떼TV방송과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은 수십년간 미국의 끊임없는 핵전쟁위협을 받고있다.

조선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본적이 없으며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것이다.

세계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50년에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전쟁 3년간 조선을 페허로 만들었으며 세균무기까지 사용하였다. 끊임없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핵위협에 대처한 조선의 핵억제력발전은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수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조선의 핵시험에 대하여서는 입을 모아 떠들어대는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위원장 쥬제 질 데 알메이다는 7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계를 진감시킨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은 수소탄시험을 진행하고 그에 대해 세계에 떳떳이 공개하였다. 조선은 남조선을 공격한적이 없으며 반대로 자체방위만을 하여왔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계속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다. 이 기회에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한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 *

이딸리아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 안또니오 라찌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딸리아신문 《일 첸뜨로》 6일부에 의하면 그는 수소탄시험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은 자위를 위한것이다, 매개 나라는 자국의 인민을 지키기 위한 해당한 해결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가장 리상적인 방도는 대화이다, 나는 대화를 중시한다, 조선도 대화를 지향하고있다, 국제공동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해제할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신 문 특 집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축하하여 영국, 체스꼬신문이 특집하였다. 영국신공산당 기관지 《더 뉴 워커》 8일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 수소탄시험에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6일 성명을 통하여 첫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하였다고 하면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적대세력이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수단과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발표하였다.

조선의 이번 수소탄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조선은 정부성명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그 어떤 굴욕적인 청탁이나 타협적인 회담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해마다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핵전략비행대를 비롯한 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에 들이밀고있으며 대조선경제제재와 모략적인 《인권》소동에 매달리면서 조선의 《제도붕괴》를 실현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미국이 핵무기로 조선을 위협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당한 조치이다. 미국은 전제조건이 없이 조선을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포함하여 모든 적대시정책을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그렇게 하는것만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체스꼬신문 《쁘로스쩨욥스까 쁘라브다》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시험을 축하한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쁘로스쩨욥스까 쁘라브다》편집부는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술적발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침략자들에게 절대로 굴하지 않는 강의한 인민이 세계에 존재한다는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조선인민은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침략자 미국과 맞서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선의 수소탄보유를 지지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바란다.

신문은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훈련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함께 편집하였다.

《자위권은 시비할수 없다》

로씨야의 웨브싸이트에 실린 글

로씨야의 웨브싸이트 《루쓰까야 쁘라우다》가 12일 《자위권은 시비할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시험성공을 두고 서방나라들이 비난을 하고있는것은 전혀 무근거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수소탄시험이 이웃나라들에 《위협》으로 되고 지역과 세계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떠들고있다.

그러나 조선은 지난 수십년간 다른 나라를 침략한적도 없고 테로분자들을 지원하지도 않았으며 혁명을 수출하지도 않았다.

남조선과의 판계정상화방도까지 항시적으로 모색하면서 아주 적중하면서도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때로부터 이 나라의 대외정책이 변화되였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핵을 보유하였든 보유하지 않았든 조선이 이웃나라들에 《위협》을 준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것이다.

조선의 모든 핵계획은 철저히 방위적목적에 있다.

그것은 리해할만 한 일이다. 이 나라는 창건된 후 오늘까지 전기간 미국과 남조선, 일본으로부터의 항시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과 남조선은 조선반도에서 정기적으로 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자기의 군사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고있으며 남조선은 미국의 압력하에 조선의 모든 평화통일제안을 배격하고있다. 달리 말하여 조선은 포위된 요새를 방불케 하고있으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의 항시적인 위협과 련관되여있다.

현재 주권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법제도는 미국에 의해 파괴되였다. 그러므로 미국과 장기간 대결하고있는 속에서 침략을 받을 경우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것은 이 침략적인 국가에 만회할수 없는 손실을 줄수 있는 능력 즉 핵무기뿐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눈감아주면서도 조선의 핵보유를 한사코 반대하는것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계획이 주되는 적인 미국을 물리치기 위한것이기때문이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고있는데 대한 책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반세기이상 침해해온 나라들이 아니라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기 인민을 수호하려고 하는 공화국에 있다고 보는것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학기술적능력을 가진 나라라면 그 어느 나라나 다 핵무기를 가지려고 할것이다.

약육강식의 법칙대로 살아가고있는 세계에서는 달리는 될수 없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 이라크는 침략자들에게 짓밟혔다. 수리아는 페허로 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런데도 우리가 침략자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조선 아니 임의의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권리를 시비할수 있겠는가?

국제사회에 새겨주는 진리

민주꽁고신문 론평 게재

민주꽁고신문 《라브니르》가 11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이라는 표제밑에 《평화는 어떻게 지켜지는가》라는 제목의 론평을 게재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 단행한 수소탄시험의 퇴성이 세계를 진감하고있다. 동시에 의미심장한 충격의 메아리가 국제사회에 울려퍼지고있다. 작은 나라 조선이 어떻게 세계최대의 핵대국에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당당히 떨쳐가고있는것인가.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항시적으로 조성되고있는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평화가 수호되고있는것인가.

돌이켜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를 뒤덮은 악몽같은 방사능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은 조선에 핵위협을 가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공격기도에 맞서 자위적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길을 택하였다. 그에 대하여 미국은 조선의 핵이 마치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인듯이 떠들어대며 조선의 핵포기를 념불처럼 외워댔다. 조선이 핵을 포기하면 그 어떤 《혜택》이라도 베풀것처럼 수선을 떨기도 하였다. 만약 조선이 핵을 포기하였다면 미국은 자기가 그처럼 제창하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막대한 물질적부를 조선인민에게 선사하였을것인가?

력사와 현실이 부정하고있다. 미국의 회유와 기만에 넘어간 이라크와 리비아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과연 어떤것인가?

이 나라들에서 국권과 인권은 만신창이 되였으며 온 강토가 류혈참극의 란무장으로 화하였다. 평화는 결코 청원이나 타협적인 회담탁에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이러한 진리를 그 누구보다 먼저 체득하고 뼈속깊이 새긴 나라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은 오직 총대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왔다. 조선이 수소탄까지 보유하여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꿈도 꾸지 못하게 되였다.

미국의 무모한 핵팡증을 옴짝 못하게 다스리고 길들이는 조선의 강력한 핵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가장 위력한 보검이다.

평화는 결코 구걸한다고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정의의 총대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조선의 수소탄시험의 메아리는 이 진리를 국제사회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행성을 진감시킨 정의의 뢰성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인사들 성명, 담화 발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이딸리아의 공산당이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수많은 핵폭탄들을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배비하고있는 핵렬강은 바로 미국이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러나 조선은 세계각지에서 전쟁을 도발하고있는 미국과 달리 그 누구를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킨적이 없는 나라이다.

수많은 핵시험들을 거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 조선에 대한 제재를 제창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국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자주적인 조선의 핵보유가 바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된다는것을 확증해준다. 우리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련대성을 확언한다.

* *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한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여 스웨리예, 슬로베니아, 말레이시아단체들이 8일과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위협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 가해지고있는 군사적위협은 실제적인 위협이다. 미국은 해마다 남조선과 함께 침략전쟁연습들을 강도높이 강행해왔다. 서방은 조선의 핵시험을 《위협》과 《도발》이라고 비난하고있으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선이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는 말은 상상할수 없는 완전히 꾸며낸것이다. 조선은 자주적인 국가로서 국방을 포함한 나라의 정책을 자주적으로 수립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는 조선은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도발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억제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였다, 이 억제력은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이번 수소탄시험은 조선이 최근년간에 이룩한 비약적인 발전을 잘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말레이시아전국은행로조는 첫 수소탄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이번 성과로 조선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에 더 강력히 대응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낼것이다고 성명하였다.

* *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우간다, 만마인사가 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 미얌발라 로렌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간다의 전체 주체사상신봉자들을 대표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성과적으로 단행된 첫 수소탄시험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우리를 최대로 격동시키고있는것은 이번 수소탄시험이 100% 조선의 지혜, 조선의 기술, 조선의 힘에 의하여 진행된것이다.

만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틴 툰은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수소탄시험에 완전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조선은 자체의 핵계획을 실현할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과 관련하여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조선이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확신한다.

미국의 핵위협이 조선을 핵억제력강화에로 떠밀었다

브라질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브라질주체사상연구쎈터가 6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미국의 핵위협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억제력강화에로 떠밀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미제가 핵무기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인류에게 핵재난을 들씌우려고 발악하고있는데 대해 자료적으로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핵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대조선핵공갈에서 극치를 이루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핵전초기지로 전락시켰다.

조선인민군에 의해 저들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고 《BC-121》대형간첩비행기가 격추되였을 때 조선에 대한 핵타격을 공공연히 웨치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였다. 또한 《키 리졸브》 등 광란적인 북침핵전쟁연습들을 세기와 년대를 이으며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미국이야말로 처음으로 원자탄을 사용하였으며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 핵몽동이를 마구 휘둘러대는 핵공갈과 핵전쟁의 원흉이다.

미국의 핵공갈을 격퇴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끊임없이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억제력강화에로 떠미는 근본요인이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핵전쟁도발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미국의 위협책동 배격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대변인이 12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위협책동을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저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아프리카와의 농산물무역을 중지할것이라고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는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기 나라가 미국의 위협속에 상품투매시장으로 되는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은 남아프리카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령해침범에 경고

이란무력 총지휘참모장이 13일 자기 나라 령해에 대한 미국의 침범행위에 단호히 경고하였다. 그는 12일 이란무장력이 나라의 남부수역에 불법침입한 2척의 미해군함정을 나포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지역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이 비법적인 행위들을 계속 감행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이란무장력은 미군의 움직임들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군부호전광의 망발 단죄

베네수엘라국방상이 10일 한 연설에서 미군부호전광의 망발을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남부군 사령관이 베네수엘라인민을 동정하여 기도한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은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부질없는짓으로 락인하였다.

미국은 전세계에 커다란 고통과 피해를 가져다주는 제국주의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해에 수십차례 발생할것으로 예견되는 지자기폭풍

최근 로씨야비상사태성이 올해에 수십차례의 지자기폭풍이 일어날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25~40차례의 지자기폭풍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있는데 매우 강한 지자기폭풍의 발생확률은 10~15%로서 3~7차례 일어날수 있다. 또한 올해에 태양활동이 점차적으로 약해질것으로 예측되지만 강한 태양폭발을 동반하는 활동고조기가 있을수 있다고 한다.

에질트의 수에즈운하

오늘의 세계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여러 나라들의 노력

최근 겉모양에 있어서나 지능에 있어서 사람과 거의 비슷한 인간형로보트들, 현대공업발전의 추동력의 하나로 되고있는 공업로보트들, 사람들의 생활을 돌볼수 있는 봉사로보트들 등 많은 나라들에서 개발한 각종 형태의 로보트들이 출품된 가운데 세계로보트대회가 진행되였다.

전시품들은 로보트발전의 추세로 되고있는 3가지 특징 즉 최고의 인간모방과 특이한 기능, 종합적인 봉사의 뚜렷한 발전면모를 보여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로보트는 해당 나라의 현대과학기술수준과 첨단제작수준, 사회발전의 지능화정도를 보여주는 징표로 되고있다. 이번에 진행된 세계로보트대회는 세계적으로 과학기술발전에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현시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정치군사적위력을 담보할수 없다. 한마디로 과학기술발전을 홀시하면 미래가 있을수 없다. 그런것으로 하여 매개 나라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고있다.

불리비아부대통령은 과학기술발전은 나라를 힘있게 떠미는 추동력이라고 하면서 21세기에 불리비아를 위한 과학기술적기초를 다져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정부가 이미 위성발사와 같은 대상계획실현을 통해 나라의 현대화를 추진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적진보를 이룩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을것이라고 밝혔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수준을 높이자면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야 한다.

인재를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인재가 노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인재문제는 곧 과학기술발전문제이며 나아가서 민족의 생존문제, 국가의 운명문제이다.

인재가 많으면 작은 나라도 강국으로 될수 있지만 인재가 없으면 아무리 광대한 령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약자가 되여 시대밖으로 밀려나는것이 바로 지식경제시대인 오늘의 현실이다.

교육발전이 없이는 결코 유능한 인재들을 육성할수 없다.

이를 자각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는 등 인재력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자국에서 심중하게 나타나고있는 문제들중의 하나인 인재부족현상의 원인을 교육의 질이 높지 못한데서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관심을 높이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실행해오고있다. 이 나라의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육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는 현실적조건에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교육년한을 늘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실리적인 기초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는것과 함께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기본대상으로 하는 2년간의 예비교육단계를 정하였다. 이 단계의 목적은 중등교육단계를 거친 학생들가운데서 대학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전문예비교육을 줌으로써 유능한 인재들을 육성하자는데 있다.

《인재고갈》타발만 하면서 앉아서 우는소리를 하던 발전도상나라들도 교육부문을 발전시켜 국력강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양성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케니아대통령은 한 대학건설착공식에서 연설하면서 고등교육발전에 힘을 넣어 인재육성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꽁고대통령은 국가투자의 기본대상은 교육부문이라고 하면서 교육발전이야말로 나라의 공업화의 기본방도이며 사회경제적진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라고 언명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대학들에서 보다 많은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현대적인 교수방법들을 연구도입하고있다.

인재육성과 함께 인재류출을 막는데도 국가적관심을 높이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인재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이미 외국에 나가있는 인재들을 다시 조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고있다.

인디아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던 지난 시기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그들의 국내취업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이려는 여러 나라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인권옹호》를 념불처럼 외워대는 미국의 진면모

지난 5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총기판매를 규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총기판매업자들에 대한 등록과 총기구입자들의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하여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총기류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것이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해보이지만 과연 이런것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전에도 오바마는 총기규제에 대하여 떠들어왔다. 하지만 총기류범죄는 줄어든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만 났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흑인교회당에서 9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아죽고 오레곤주의 한 대학구내에서 총기란사사건으로 13명이 목숨을 잃은것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모두 1만 3 286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나라에서는 총기문제가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 인권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그런데 사람들을 아연케 한것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들이 도리여 총기를 마구 휘두르며 인권유린만행을 일삼고있는것이다.

시카고에서 19살 난 흑인남성과 5명의 자녀를 둔 55살난 흑인녀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것은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지난해 총기류에 의한 사망자중에서 경찰들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람은 986명이나 된다고 한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경찰들이 지난해의 마지막 5일동안에만도 20여명이나 쏴죽였다는것이다.

미국에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학살만행은 더 혹심하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에 의한 흑인사살건수는 백인사살건수에 비해 3배나 더 많다고 한다.

경찰들의 끊임없는 살해행위에 항의하는 흑인들의 시위가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흑인인권운동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블래크 라이브스 매터》가 주도한 흑인들의 대규모시위가 일어났다. 수백명의 시위자들은 《우리가 원하는것은 무엇인가. 》, 《정의다. 》, 《언제 원하는가. 》, 《바로 지금이다. 》라고 웨치면서 시위를 벌렸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흑인들의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초 경찰이 또다시 죄없는 흑인을 쏘아죽인데 대해 항거해나선 시위자들은 샌프랜씨스코국제비행장부근에서 시위를 벌리면서 고속도로를 점거하였다.

당국의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여 벌리는 흑인들의 시위는 미국도처에서 련속적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있다.

인간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인권유린만행에 대해 성근히 인정하고 반성하는것이 마땅하다. 허나 미국경찰들은 저들이 저지른 인권유린만행을 보여주는 기록적인 수자앞에서 얼굴을 붉힐대신 《경찰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느니, 《정당방위를 했다. 》느니 뭐니 하며 요리조리 발뺌을 하고있다.

가판은 살인을 저지른 경찰들이 당국의 비호두둔밑에 무죄석방되여 머리를 쳐들고 거리를 빼젓이 활보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다. 당국의 태도가 이러할진대 어떻게 미국에서 경찰에 의한 총기류범죄를 막을수 있겠는가.

하기에 미국의 가정들에서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길거리에서 뛰여다니지 말라. 》고 목아프게 타이르고있다.

비단 달리는 자동차에 치우는것만을 념두에 두고 하는 부모들의 잔소리가 결코 아니다. 자기 자식들이 경찰에게 《수상하게》 보여 애매하게 총에 맞아죽을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산생한 하나의 걱정거리이다.

이것은 인권유린왕국인 미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미국에서 감행되고있는 인권유린만행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태아의 장기까지 팔아먹고있는 판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유린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오죽 심각했으면 그것이 최근에 미국의 CNN방송이 선정한 2015년 미국의 10대 정치뉴스의 한 조항으로 올랐겠는가.

이것이 바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옹호》를 념불처럼 외워대는 미국의 진면모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고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인권유린만행을 일삼고있다.

해외에 있는 비밀감옥들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야수적이며 비인간적인 고문들, 인체실험 등을 비롯하여 미국이 감행한 인권유린만행들을 다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러한 인권허물투성이를 안고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그 무슨 《인권》에 대해 떠들어대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을 입에 올리기 전에 저들의 인권문제부터 바로잡는것이 좋을것이다.

림 원

ㄱ-61010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